

## 키이스 인트레이터 목사 집회 1 - 생수의 강

요한복음 1:33, 7:37, 14:16

/ 2004년 10월

예수님은 성령의 기름을 붓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로 세례를 받은 것은 충분치 못하다.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을 단순히 믿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영을 우리 몸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주님은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주님만을 믿는 것이 전부라면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더 낫습니다. 주님이 직접 전도하시고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이 믿는 자들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 우리 안에 사시는 하나님

하지만 믿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멀리 계신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정도의 거리감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가까이 오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이야기 하고 대면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곁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성부)와 내(성자)가 너희 안에 거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거한다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거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유대인들은 유대인만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만을 위한 메시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이들의 것입니다. 모든 이들에게 동시에 충만하길 원하십니다. 육신이 있으면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고,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때 이 땅의 모든 사람 가운데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계시는 곳이면 어디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이 땅에 편만하신 분입니다.

### 성령을 받으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칩니다. 생수의 강은 실제로 내 배에서 흘러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말합니다. 이 생수의 강은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와 저와 여러분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갑니다. 여러분에게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에게서 나왔으니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우물은 여러분이 마실 물입니다. 거둬냈다는 것은 마음 가운데 생수의 샘을 얻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생수의 샘을 얻은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만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라면 우물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열방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샘물은 흐르고 흘러 한국, 중국, 일본, 인도 등 열방을 덮을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벽이 있습니다. 공산주의, 이슬람, 힌두교 등입니다. 그러나 생수의 홍수가 일어날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할 때 벽이 무너질 것입니다. 능력이 백성들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물만으로 만족한다면 이기적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할 이유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30세 이전에는 기적을 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받고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나 스스로 한 것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분은 성령님과 함께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떠나가시면서 '내가 가졌던 영을 너희에게 동일하게 준다'고 하십니다.

그분이 하신 것을 나도 할 수 있다고 믿으십시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갈망하고 바라는 자들이 성령세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간구하는 만큼 정확하게 채워주십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은 생수의 강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또 저가 수정 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 나무가 있어 열 두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면 열방이 소성합니다. 이 강은 우리로부터 많은 나라로 흘러갑니다. 나라가 치유된다는 것은 백성들을 치유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백성들이 고통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생수의 강은 그들의 영혼, 마음, 가정을 치유합니다.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요 우리는 생수의 저장소입니다.(렘2:13)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생수로부터 떠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생명의 물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죄는 우리를 깨뜨립니다. 은혜를 담을 그릇이 깨지는 것입니다.

## 열방을 살리는 생수의 강

우리가 다시 생수의 곁으로 갈 때 내면이 깨진 상태에서 간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음이 치유함을 받아야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을 치유할 것입니다. 깨진 영혼의 틈을 채워줄 것입니다. 튼튼한 그릇이 되게 할 것입니다.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 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눅 3:22)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세례를 받으신 것은 여러분에게 일어날 일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첫 번째 사역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정체성이 변하기를 바랍니다. 자신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이해를 바꾸십시오. 세 부분이 있습니다. ‘내 아들(딸)’,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를 기뻐하노라’입니다. 이 세 가지를 다 가지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거절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름이 있습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정체성이 있고 유산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인류의 깊은 기억 속에는 에덴동산으로부터 거절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을 2천년동안 나라도 없이 떠돌아다니게 했습니다. 우리 민족(유대인)은 거절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다시는 거절당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받아들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의 상처, 두려움, 거절감을 치유하십니다. 생수의 강은 나뿐만 아니라 열방을 치유할 것입니다. 제일 믿기 힘든 부분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나같이 보잘것없고 실패한 인생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47장에는 성전으로부터 물이 흐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물은 처음에는 발목까지 흐르더니 점점 차올라 건너지 못할 강이 됩니다. 성령의 능력은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갈수록 넘쳐날 것입니다. 무한하신 능력을 체험하십시오. 하나님은 생수의 강을 통해 열방을 회복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 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겔 47:9)

정리 = 서철chol@onnuri.or.kr

\* 출처 : 온누리신문